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11

2017 | Vol. 549

만좌모의 석양(万座毛の夕陽) Photo : MIN HYEJIN

2017 순천 JAPAN WEEK

JAPAN WEEK는 1998년 일한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한일공동선언' 및 그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구축함에 있어 '지역 수준의 교류 촉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매년 혹은 격년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다양한 일본문화를 종합적,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약 1주간에 걸쳐 전시, 공연, 워크숍, 강연회와 설명회 등 지역 여러분께 다채로운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첫 번째 JAPAN WEEK로서 한국의 생태 수도라 불리는 순천시에서 개최된다.

기간 11월 1일(수)~ 11일(토) **장소** 순천시 일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후원 순천시,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KBS 순천방송국, 동우화인켄주식회사,
일본항공, 일한문화교류기금,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20, 123) www.kr.emb-japan.go.jp, 무료행사

특별강연회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특별강연회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일한관계에 관한 강연회를 실시한다.

일시 : 11월 1일(수) 14:00~15:30

장소 :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

임명식

순천지역 COOL JAPAN 리포터 임명식

주한일본대사관은 '2017 순천 JAPAN WEEK'를 기념해 순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15명의 'Cool Japan 리포터'에게 주한일본대사가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들에게는 일본외무성의 청소년 교류 사업인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청소년교류(JENESYS 2017)'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2018년 1월 23일~2월 1일 실시 예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일시 : 11월 1일(수) 15:30~15:50

장소 :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

설명회

유학·워킹홀리데이 설명회 / 일본취업설명회

일본 정부 초청 국비유학 및 워킹홀리데이 등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담당자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 (사)한국무역협회 협력으로 일본 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도 함께 실시한다.

일시 : 11월 8일(수) 14:00~15:50

장소 : 순천대학교 학생회관 2층 문화강당

전시회

일본의 전통미술 우키요에전

고흐, 모네, 마네 등 후기 인상주의 거장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지는 일본의 전통미술 우키요에. 히로시게, 호쿠사이, 샤라쿠 등 당대 최고 우키요에 작가들의 명작을 원래의 화려한 색채로 재현한 복각화를 전시한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공동주최.

일시 : 11월 1일(수)~11일(토) 09:00~18:0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1층 전시장



일본의 생활풍습전

일본의 전통적인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풍습을 소개하는 전시회. 관람객이 직접 전통의상, 놀이도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일시 : 11월 1일(수)~11일(토) 09:00~18:0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1층 전시장



어린이를 그리다-이와사키 치히로전

'전 세계 어린이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이라는 염원을 담아, 어린이를 주제로 한 1만 점 넘는 작품을 그린 '이와사키 치히로'의 대표작 30점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일본국제교류

기금 서울문화센터, 치히로미술관, (사)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공동주최.

일시 : 11월 1일(수)~11일(토) 09:00~21:00 / 주말 09:00~18:0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1층 로비

한일 영화홍보전단 비교전

일본과 한국의 영화관에서 배포되는 동일한 영화의 홍보용 전단을 하나의 액자에 넣어 비교 감상하는 전시회.



일시 : 11월 1일(수)~11일(토) 09:00~18:00

장소 :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전시실

공연

ZI-PANG & Sakura Project 콘서트

세계적인 퍼커서니스트 하야시다 히로유키 씨가 이끄는 3인조 일본복 연주그룹 'ZI-PANG(지팡구)'와 동서양 악기의 앙상블 여성 4인조 그룹 '사쿠라 프로젝트'의 콘서트. 순천시 후원으로 '순천만갈대축제'에서 열린다. 무료공연.

일시 : 11월 4일(토) 14:00

장소 : 순천만습지 잔디광장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 공연

오랜 세월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다이도게(大道芸) 공연. 다이도게는 주로 곡예와 간단한 마술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도쿄도(東京都)에서 실시하는 헤븐아티스트 인증을 받은 8팀이 내한하여 순천시민과 교류의 기회를 갖는다.



■ 순천제일대학교 공연 & 워크숍

일시 : 11월 8일(수) 14:00~15:20

장소 : 순천제일대학교 소극장

■ 순천공업고등학교 공연 & 워크숍

일시 : 11월 8일(수) 14:00~15:50

장소 : 순천공업고등학교 희망관 3층 시청각실

■ 순천대학교 공연

일시 : 11월 8일(수) 16:00~17:00

장소 : 순천대학교 정문영 열린광장

■ 순천청암고등학교 공연 & 워크숍

일시 : 11월 9일(목) 10:00~11:50

장소 : 순천청암고등학교 예정관 야외무대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공연

일시 : 11월 9일(목) 14:00~16:0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공연장

워크숍

기모노 워크숍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소개하는 행사. 기모노 전문가 다카기시 치카코(高岸千華子) 씨의 설명과 다양한 기모노 착용 실연, 그리고 참가자가 직접 입어보는 체험을 통해 기모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시 : 11월 4일(토) 14:00~16:0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305호 예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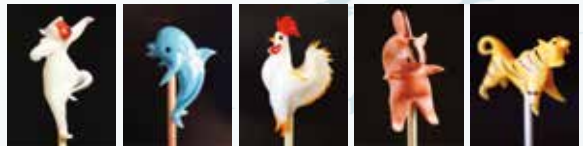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 사탕공예 아메자이쿠(飴細工) 특별실연회

일본의 아메자이쿠시(飴細工師: 사탕공예가) 미즈키 다카히로(水木貴広) 씨를 초청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사탕공예기법 아메자이쿠를 소개한다. 작품제작과정을 실연으로 보여주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

일시 : 11월 5일(일) 11:00~13:00 / 15:00~17:0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1층 전시장



에테가미(絵手紙) 워크숍

20여 년간 에테가미 강사로 활동 중인 후쿠마 에리코(福馬江里子) 씨를 초청해 에테가미 워크숍을 실시한다. 에테가미란 그림이 그려진 편지로, 그림으로서의 '작품'보다 '편지'에 중점을 둔다. 그 사람의 웃음 띤 얼굴을 떠올리며 말을 걸듯이 상대가 알아보기 쉽게 쓰는 것이 포인트.

일시 : 11월 11일(토) 11:00~12:30 / 15:00~16:30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204호 학습실



2017 김해 JAPAN WEEK

예로부터 일본과 활발한 교류가 있던 김해에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최로 '2017 김해 재팬 위크'가 개최된다. 김해시는 1992년부터 일본의 무나카타시(宗像市)와 자매도시 체결 이후, 매년 꾸준히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김해 재팬위크에서는 강연, 공연, 워크숍, 전시회 등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참가무료.

기간 11월 2일(목)~11월 10일(금) **장소** 인제대학교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후원 김해시, 인제대학교, 김해문화원, 일본항공, 일본국제교류기금, (사)경상남도 한일친선협회,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사)부산한일교류센터, (사)부산국제교류협회, 동우화인켄(주), 비토 아트컨설팅

문의 주부산일본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강 연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尚史)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

일시 : 11월 6일(월) 15:00

장소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인문교양세미나실

영화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번역가 강민하 씨 강연회

일본영화 번역 전문가인 강민하 씨 초청 강연회.

일시 : 11월 8일(수) 15:00

장소 : 인제대학교 늘빛관 이태석기념홀



워크숍

일본 꽃꽂이(生花) 워크숍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꽃꽂이 종가로 알려진 이케노보(池坊) 유파의 박영순 이케노보 한국 서울지부장을 초청하여 일본 꽃꽂이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들이 직접 일본 꽃꽂이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 11월 4일(토) 13:00

장소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6층 PRIME CO-WORK CAFE

신청 : 40명, 10월 31일(화)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051-410-6124~6)



공 연

ZI-PANG & Sakura Project 콘서트

일본 북 연주그룹 'ZI-PANG'와 동서양 악기의 앙상블 '사쿠라 프로젝트'의 조인트 콘서트, 선착순 무료 입장.

일시 : 11월 2일(목) 18:00~

장소 : 인제대학교 늘빛관 이태석기념홀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大道芸) 공연

기예와 마술, 그리고 웃음! 일본의 전통 예능 다이도게. 그 전통과 현대가 만난다. 선착순 무료 입장.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월) 18:00, 인제대학교 늘빛관 이태석기념홀

11월 7일(화) 13:00, 인제대학교 늘빛관 앞 광장

(우천시 취소)

일본 차(茶) 시연 및 시음회

-어서오세요! 일본 차의 세계로-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일본 차 대사 중 한 명인 오가타 준코(尾形純子) 씨의 강의로 일본 차의 매력에 대해 알아본다.

일시 : 11월 9일(목) 14:00

장소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6층 PRIME CO-WORK CAFE

신청 : 40명, 10월 31일(화)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051-410-6124~6)



전 시

고흐가 사랑한 우키요에(浮世絵)

일시 : 11월 2일(목)~10일(금) 10:00~18:00

(토요일 15:00까지, 일요일 휴관)

장소 : 인제대학교 김학수기념박물관(백인제기념도서관 內)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성황리에 개최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이, 지난 9월 24일(일) 코엑스에서 약 6만 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삼구 실행위원장과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실행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었으며,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조현 외교부 제2차관, 문희상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국민이 힘을 모아 일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가자는 취지의 축사를 했다.

오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축제한마당을 깜짝 방문했다. 국무총리로서는 첫 방문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와 자매도시인 돗토리현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국무총리가 지사를 지냈던 전라남도과 고치현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JENESYS 일본대학생방한단 부스를 찾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문 후 개인 SNS를 통해, 한일축제한마당이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수많은 양국 청년들이 몰려들어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꿉니다.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미래를



넘겨 드리는 일은 어른 세대의 책임입니다”라는 코멘트를 사진과 함께 남기기도 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가을,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양국 최대의 문화교류 행사로 성장해 왔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특히 2009년부터는 도쿄에서도 같은 행사가 개최되어, 서울과 도쿄의 가을 연례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서로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자는 뜻에서 서울과 도쿄가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를 테마로 진행했다. 또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의 포스터 디자인 등도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와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양국의 올림픽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공식행사의 오프닝 공연에서는 일본문리대학 치어리딩부 'BRAVES'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 및 '반다비'와 함께 하는 한일 양국의 올림픽 응원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BRAVES'의 공연이 시작되자, 관람객들은 감탄과 함께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퍼포먼스를 지켜보았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돗토리 히가시 고등학교' 팀이 서예 퍼포먼스를 통해 한일 양국의 올림픽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또한 매년 많은 분들께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가 합동공연으로 'together'를 부르며 공식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일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Festival Wall>은 '함께 나아

가자 한마음으로'라는 테마에 걸맞게, <한일축제한마당이 응원합니다!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라는 타이틀로 한일축제한마당 응원 메시지를 비롯해, 올림픽 응원 메시지 등 관람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다양한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졌다. 또, 방문객이 무대에 출연한 양국 아티스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밖에, 올해도 54개의 기업 · 지자체 부스와 체험 · 이벤트 부스, 푸드 부스를 유치해, 일한 양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행사를 구성했다. 푸드 부스는 많은 관계자의 협력으로 우동, 카레, 각종 빵, 맛 달걀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또, 체험 · 이벤트 부스에서는 매년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부스가 마련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동일본대지진 후, 부흥활동을 위해 구성된 '미치노쿠 센다이 ORI☆히메타이'가 무대공연과 함께 부스를 출전해 재해지역의 부흥상황을 알렸다. 또 프로 젤다마 강사를 초빙하여 젤다마 워크숍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본문화체험 ORIKON 부스’, 일본 사케와 한국 명품주를 시음할 수 있는 ‘한일 식문화 부스’, 한일축제와 전통의상 체험 부스 등에는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참가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행사장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열린 공연은 3차례 걸쳐 진행된 일본문리대학 치어리딩부 ‘BRAVES’의 공연이 단연 백미였으며,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미오노야’는 일본전통무용 복장으로 한국의 부채춤을 추는 무대를 구성해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라는 공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가류(我龍)’는 전통적인 북과 현대적인 드럼 비트의 조화 속에 열정적인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청명’의 난타 퍼포먼스, 채향순 중앙무용단의 공연 등 그 어느 하나도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짜임새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올해의 피날레 공연은 한국의 청사초롱과 일본의 초칭(등롱)이 등장하며 시작되었고, 이어서 170여 명의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팀, ‘약동’과 고치현 요사코이 엠버서더로 임명

된 ‘부산기병대’의 컬래버레이션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일본문리대학 치어리딩부 ‘BRAVES’, 채향순 중앙무용단의 멋진 퍼포먼스로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마지막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중심으로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며 끝을 맺었다. 피날레는 1년에 걸쳐 행사를 준비한 실행위원과 운영위원 그리고 당일 행사 진행을 도운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노력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9월 23일(토) 서대문구에 위치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는 본 행사에 앞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사전행사>가 진행되어,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많은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처럼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은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서, 앞으로도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라는 슬로건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즐기는 행사로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현지 취재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Tokyo’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함께 일본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가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인 ‘JENESYS 2017’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 기간 중, 일행은 9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도쿄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Tokyo’에도 참여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9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행사라는 의미를 살려,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수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최대 규모의 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한일축제한마당은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며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를 슬로건으로 열렸는데,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로 활동하는 14명은 자원봉사자로서 이 행사에 참가하여, 고구려 전통의상 시착 체험 및 고마군(高麗郡) 건군 1300주년 기념 전시 부스 운영을 도왔다. 한국문화를 소개하면서, 고구려 전통의상 시착을 도와주고, 일본인 관람객과 직접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가 직접 일본의 매력적인 문화와 소식을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린다.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bunkain>

일본문화원 공식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김정현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



“그 인형,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その人形、どこでもらえますか。”

귀여운 곰인형을 허리에 매고 있는 일본인 3명에게 서툰 일본어로 질문을 던졌다. 빨간색 스테이프용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 보니, 한일축제한마당 부스 운영 자원봉사자인 듯했다. “저쪽 부스로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배웠다

는 친구, 한국식당에서 일하며 한국인이 좋아졌다는 친구, K-POP을 통해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는 친구까지,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세 명의 친구들이었다. 자연스럽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웃고 떠들었다. 그녀들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왔다. 불임성도 없고 내성적인 나를 변화시킨 것 또한 그녀들의 ‘웃는 얼굴’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수줍은 미소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 웃음은 이상하게도 전염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



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포즈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동반된 '끌림'이 그들과 나를 웃게 했으리라.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의 말처럼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지 않은가? 서예 부스에서는 많은 양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한일우호 응원하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국에서 일본까지' '사랑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등 우호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에너지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으니, 양국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이다.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Tokyo 자원봉사활동

지수빈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

지난 9월 23일과 24일, 도쿄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Tokyo'의 고구려 전통의상 체험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중고교 시절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립 도서관에서 먼지를 털어본 경험밖에 없던 터라,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불안감이 훨씬 커진 상태였다. 축제 첫날인 23일 아침, 비로소 할 일이 명확해졌다. 사전 회의 때는 안내 파트를 맡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고구려 전통 의상 시착과 안내를 돕기로 했다.

부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우선은 장년의 남성분이다. 옷 고르는 것을 도와드리며 대화를 나눴는데, 내 어눌한 일본어에도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시고 심지어 '딸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 도쿄에서 듣는 '무스메(嬢)'라는 말에 갑자기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했다. 두 번째는



내 또래의 여학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유학한, 정치에 관심이 많고 K-POP을 좋아하는 친구다. 특유의 시니컬한 표정과 시원시원한 말투가 무척 매력적이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순정만화에 서 막 튀어나온 듯한 미모의 남학생이 뇌리에 남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거리낌없이 내게 말을 걸어 주었다는 것이다. 일본어가 서툴러도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어일본학 전공이면서도 아직은 유치원 수준인 내게,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혼자였다면, 자유여행이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값진 순간을 선물 받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다.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 공원의 공기, 조금 상기된 웅성거림... 그 순간을 이루고 있던 모든 기억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올레 코스의 고만고쿠 수로터

두루미가 맺어 준 국제 자매도시 순천시와 이즈미시

이즈미시

이즈미시(出水市)는 일본 남부, 규슈(九州) 지방의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시라누이카이(不知火海), 남쪽으로 시비산(紫尾山)을 바라보고 있으며, 북쪽을 향해 넓은 평야가 펼쳐진 풍요로운 전원도시다.

이즈미시는 2011년 개통된 규슈 신칸센 가고시마선(九州新幹線鹿児島ルート)의 정차역이 있으며, 미나미규슈 니시마와리 자동차도로를 비롯해, 가고시마공항으로 이어지는 호쿠사쓰(北薩) 횡단도로 등 고속교통망의 정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즈미 시내에는, 에도(江戸) 시대부터 400년 넘게 이어진 이즈미 후모토무사저택군(出水麓武家屋敷群)이 있는데, 예로부터 전해진 일본 전통 거리가 현재까지도 양호하게 보존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관광 우마차, 다도 체험, 기모노 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매년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 지방에서 몽골, 한반도 등을 거쳐 날아온 10,000 마리 이상의 두루미를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월동지로 알려져 있어, 이즈미시 두루미박물관 ‘크레인파크 이즈미(クレーンパーク いづみ)’에는 지금까지 해외의 많은 관광객과 조류 연구자들이 방문해, 동아시아 두루미 네트워크(東アジアツルネットワーク) 국제회의 및 일본 국내의 각종 조류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는 도시다.

자매도시협약 체결의 계기

2003년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약 200마리의 두루미를 보



2017년 2월 17일 규슈 올레 이즈미 코스 오픈 전야제

호하고 순천만에 '생태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순천 시장이 이즈미시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세계적인 두루미 보호와 관광 발전, 우호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순천시와 이즈미시가 두루미 보호를 위한 우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교류

행정 교류는, 양 시에서 개최된 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의 상호 참가와 순천시 직원의 이즈미시 생태 및 환경정책 선진지역시찰, 또 순천시에서 개최된 '갈대 축제'에 이즈미 시장, 의장과 교육장이 초대를 받아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해 왔다.

2014년 순천에서 개최된 두루미 심포지엄을 위해 방문했을 때, 순천시, 이즈미시, 중국, 러시아가 두루미 보호에 관한 MOU에 사인하는 등, 원래 두루미를 통한 교류가 중심이었지만, 2012년 자매도시협약체결 이후,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2013년 순천시에서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콘테스트에 이즈미시에서도 '조원 건설업협회(造園建設業協会)'가 참가하여 조성한 정원을 출시, 정원 콘테스트

실내정원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또 이 박람회에 이즈미시 시내 원아, 아동의 그림 3,903점을 기증하여, 현재도 순천시내 꿈의 다리에서 이를 전시하고 있다.

2016년 순천시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이즈미시 참가단이 초대되어 이즈미시를 소개하고, 아울러 순천시의 그림책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초레호도서관 등을 시찰하는 한편, 이즈미시 두루미 박물관 '크레인파크 이즈미' 내에 순천시를 시찰한 내용을 참고로 도서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일본 최고의 독서활동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독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유카타 입고 다도 체험



후모토무사저택군을 일주하는 관광 우마차

이즈미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임업수산업 및 상공관광업 대산업제’에는 순천시의 특산품을 출품, 홍보하며 순천시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또 교육, 문화 분야의 교류로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중고교생을 상호 파견하고 있으며, 홈스테이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이 청소년 교류사업은 양국 문화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적 시야를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교류와 장래

자매도시협약 체결에 따라 순천시와 교류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즈미시를 방문하시도록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올레길’의 자매판 규슈 올레 이즈미 코스(九州オルレ出水코스)를 2017년 2월 18일 오픈했다.

규슈 올레 이즈미 코스의 특징은 강과 논을 중심으로 한 전원 지대의 풍경과 약 400년 전의 거리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즈미 후모토무사저택군을 산책하는 등 자연과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며, 골인 지점인 이즈미 후모토무사저택군에서는 기모노(유카타) 체험과 관광 우마차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올레길 개막 행사에는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김옥채 총영사를 비롯해 한국에서 언론 관계자, 일반 투어 관광객 등 약 100명의 인원이 참가해 개막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올레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자매도시결연 5년째를 맞아, 앞으로도 경제 분야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 상호 간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이어온 교류를 소중히 여겨, 교류의 한층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다.

[문의처]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시티 세일즈과

TEL : +81-996-63-4059 FAX : +81-996-63-1331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관광 포털 사이트

www.izumi-navi.jp/kr/

(집필: 이즈미시, 협력: CLAIR, Seoul)



포사 마그나 뮤지엄에서 일본 열도의 형성 및 보석 '비취' 전시를 볼 수 있다.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일본 최초의 세계지오파크 인증



이토이가와시는 일본 최고의 비취 산지다.

니가타현(新潟県) 서남단에 위치한 이토이가와시(糸魚川市)는 인구 약 4만 3천의 도시다.

시의 북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남으로는 니가타현의 최고봉인 고렌게산(小蓮華山, 2,766m) 등 북알프스의 산들이 우뚝 솟아 있는 역동적인 지형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쌀과 채소, 버섯, 산나물, 고추냉이, 메밀 등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이 지역의 5개 술도가에서는 맛있는 쌀과 깨끗한 물로 담백하고 씹살한 맛의 니혼슈(日本酒)를 빚고 있다. 또 약 5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7곳의 어항(漁港)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게와 새우, 심해어를 중심으로 어업도 번창해 있다. 특히 붉은 대게와 단새우, 셋멸, 아귀가 인기로 산해진미의 맛을 즐길 수 있다.

2015년 호쿠리쿠 신칸센 이토이가와역이 생기면서 도쿄(東京)와 도야마(富山)로부터 접근성도 좋아졌다.

이토이가와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이토이가와의 거의 한복판을 흐르는 히메강(姫川)과 유라

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를 이루며 일본열도를 동서로 분단하는 활성단층 '이토이가와-시즈오카구조선(静岡構造線)'이 나란히 지나고 있다. 이 단층의 동쪽은 깊이 6000m의 비교적 새로운 지층으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지구대(地溝帶)로 '포사 마그나'라 불린다.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분리될 때 생긴 큰 균열의 흔적으로 일본 열도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토이가와의 역동적인 지형은, 이 구조선을 따라 대륙판이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졌다. 또 보기 드문 신 광물과 귀중한 화석이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 최대의 비취 산지인 고타키강(小滝川) 비취 협곡과 오우미강(青海川) 비취 협곡 등 뛰어난 지질적 유산도 남겨 주었다. 이 2개의 비취 산지는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자연 그대로의 비취 원석을 견학할 수 있다.

유구한 대지의 조화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단층 작용으로 생긴 낮은 지대는 도로가 되었다. 이

토이가와에서는 주로 소금과 해산물이 운반되었기에 '소금 길'로 불린다.

이토이가와 서부에는 북알프스가 바다로 떨어진 단애 '오야시라즈(親不知)'가 있다. 예로부터 교통이 험한 곳으로 유명하며, 이 오야시라즈를 경계로 일본의 동서 문화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지형과 지질적 유산을 보유한 이토이가와는, 2009년 일본 최초로 세계지오파크 인증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뛰어난 자연과 유산을 보호, 보존하면서 교육 및 예코 투어리즘에 활용하고 있다.

지오파크의 정보센터인 '포사 마그나 뮤지엄'은 2015년에 전면적으로 새 단장을 했다. 영상 등을 이용한 쌍방향 전시를 통해 일본 열도의 형성, 비취의 탄생과 역사, 그리고 대지와 인간의 심오한 관계를 배울 수 있다. 또, 해안에서 주운 돌멩이도 감상하고 있다. 따라서 운이 좋으면 천연 비취를 만날 수 있다!



스키, 스노보드, 천연 슬로프 등 이토이가와는 눈의 파라다이스다.



무라노 도고의 건축과 사와다 세이코의 조각이 일체가 된 보기 드문 다니무라 미술관

겨울 파라다이스

이토이가와 주변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적설지역이며, 시내에 2곳의 스키장이 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이토이가와 시 사이드 밸리’는 슬로프가 넓고 완만해, 바다를 바라보며 스키를 즐길 수 있다. 그 밖에 스노보드, 썰매, 스노슈 트레킹과 눈 싸움 등도 즐길 수 있다. 온천을 갖춘 호텔과 레스토랑도 있어 겨울 휴가에 최적이다. ‘샤르망 히우치 스키장’의 슬로프는 ‘비압설주의(非圧雪主義)’로, 자연 그대로의 슬로프와 다량의 파우더스노가 특징이다. 천연 슬로프와 파우더스노를 즐기는 분들은 안가면 손해! 스키 후 뒤풀이로 시내 10여 곳의 천연온천에서 즐기는 유키미부로(雪見風呂) 즉, 설경을 감상하며 즐기는 목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면, 시가지 음식점에서 겨울철 살이 오른 생선과 맛있는 토속주를 마셔 보는 것도 좋다.

볼거리가 가득한 이토이가와

이 밖에도 볼거리가 가득하다! 교쿠스이엔(玉翠園)·다니무라 미술관(谷村美術館)에서는 불상과 일본 정원의 매력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미술관은 유명 건축가인 무라노 도고(村野藤吾)가 말년에 설계한 것으로 건물 자체가 중요한 유산이다.

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노우항(能生港)이 있다. 연간 수백 톤의 신선한 생선이 이곳에서 물에 올려져, 시내 외의 시장과 식당으로 직송되고 있다. 노우항 옆에 있는 국도변의 휴게소 ‘마린드림 노우’에서는 항구에서 직송한 생선을 맛볼 수 있고, 직판장 ‘가니야요코초’에서는 현지 어선의 신선하고 맛있는 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다. 생선이나 게를 판매하는 가게 외에 음식점과 물산점도 있다.

(집필: 이토이가와시, 협력: CLAIR, Seoul)



시내에 개성 있는 10여 개의 온천이 있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다.



꽃게, 단새우, 아귀 등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갯포 치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한식과 일식을 공부한 성래현 대표, 의학과 교육학을 요리에 접목하고자 하는 양수임 대표, 그리고 20세 때부터 일본요리의 외길을 걸어온 최지웅 헤드 셰프를 중심으로 5명의 셰프가 일본 음식과 더불어 일본 문화를 알리고 있는 공간 '치유'.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앞으로 이들이 요리를 통해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 더욱 궁금해졌다.

갯포 치유란 이름의 의미와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양수임 대표 '치유'라는 단어에는 '약식동원'과 '식문화 외교'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음식을 통한 치유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식동원(藥食同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의 의미를 담아, 선선하고 좋은 원재료의 특성을 살린 일본요리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외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서

로의 식문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한다는 뜻에서 '치유'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성래현 대표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일본요리를 배우기는 했지만, 저는 주로 메뉴의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고,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객이 음식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일본 문화를 느낄 수 있도





록 ‘치유와 함께하는 사케 갈라디너’라는 타이틀로 사케(일본술) 소믈리에를 초청해 사케 제조법 등의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일본의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사후 100주년을 맞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40여 개의 음식 단어를 사용해 연화용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코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일본요리’를 테마로 한국 전통주와 일본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 전통주와의 페어링 행사’와 한국 고조리서(古調理書)의 요리를 가이세키 코스에 적용한 ‘옛 것에서 뿌리를 찾다’라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요리가 인기를 얻으며 관련 전문점도 많이 늘었는데, 이러한 일본요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변화 속에서, 지향하는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성래현 대표 지금까지는 일요일에 음식관련 지식을 나누는 아카데미나 스터디를 열 수 있도록 가게를 무상으로 대여해 왔지만,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학습 용도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스크린 프로젝트를 설치해 소규모 아카데미는 물론, 한국 요리와 일본 요리의 틀에서 벗어나 다국적으로 전문 셰프를 모시고 미소(일본 된장), 간장, 치즈 같은 ‘발효’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2층은 일본 음식과 더불어, 일본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처럼 공간을 제공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강연을 하는 등 일반인들이 편하게 일본 음식을 즐기며,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인들은 일본 문화를,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를 더욱 좋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지용 셰프 인터뷰

일본요리를 만들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어렵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20살이던 1997년부터 일본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손님들께서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드시거나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정해진 메뉴가 아니라 셰프가 알아서 요리를 내는 오마카세를 만들 때입니다. 셰프가 전적으로 손님의 성향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요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요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일본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좋다’라든가 ‘대중화를 위해 어느 정도 현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인기 메뉴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식재료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본 본토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요리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지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메뉴로는 생선회를 비롯해, 참치와 우영, 튀김 등의 재료를 듬뿍 넣어 굵게 말아낸 일본식 말이, 즉 ‘후토마키’와 제철 식재료로 만든 따뜻한 국물을 즐길 수 있는 ‘모듬 냄비’가 인기가 있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이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 JET프로그램 모집요강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사업)의 약칭으로 일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및 학교에서의 외국 어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일본 정부(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협회)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다.

[모집 직종]

국제교류원(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담당부서에 배치되어 국제교류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의 개최, 내빈통역, 자치단체 홍보물 번역,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등의 업무

*모집요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http://www.kr.emb-japan.go.jp/cult/JET.html>)

[모집 기간]

방문 접수 : 10월 18일(수) ~ 11월 8일(수)

장소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시간 : 월 ~ 금(10:00 ~ 12:30, 13:30 ~ 17:30, 휴관일 제외)

우편 접수 : 10월 18일(수) ~ 11월 6일(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 (등기에 한함,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라고 명기할 것)

주소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앞

※ 접수 후 수험표 및 시험 안내문 배부

문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상담실 02-765-3011(내선 140) / jet@so.mofa.go.jp



일본 서적 소개

위험한 비너스

더욱 유쾌하고 매력적인 스토리로 돌아온 히가시노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운옥 옮김 | 현대문학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소설 '위험한 비너스'. 본격 사회파 미스터리부터 서스펜스, 판타지, SF, 로맨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매번 흡입력 있는 전개를 선사하는 저자가 이번에는 하나의 행방불명 사건과 낯선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수께끼가 이어지는 미스터리를 오락성 짙은 서사로 펼쳐낸다.

동물병원 수의사 데시마 하쿠로에게 낯선 여자의 전화가 걸려온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학계 명문가 야가미 가문에 재가한 어머니가 얻은 아홉 살 어린 이부동생 야가미 아키토, 몇 년째 왕래가 없었던 그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그의 아내 가에데

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버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매달린다. 결국 하쿠로는 그녀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래전 연을 끊었던 야가미 가문과 다시 얽히게 된다.

10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3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4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5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민음사
6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7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8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9	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0	꿀벌과 천둥	온다 리쿠	현대문학
11	초바키 문구점	오가와 이토	예담
12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13	바다가 보이는 이별소	오기사와 히로시	알에이치코리아
14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
15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6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울게	기타가와 예미	놀
17	이제와서 날개라 해도	요네자와 호노부	엘릭시르
18	악의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9	상실의 시대(원제 :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20	1Q84. 1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제공 : 교보문고)

제6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본선이 11월 18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개최된다.

전국의 일본 관련 학과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소의 일본어 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 일본 관련 학과 학생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가 6회째로 예선을 통해 선발된 5팀이 경연을 펼치게 된다. 입상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JENESYS 2017) 참가 기회와 격려금 등을 수여한다.

일시 11월 18일(토) 14:00~18: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후원 수림문화재단,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한국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시사일본어학원, 한국일본학회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내선 120, 123, 153)



〈동행〉시리즈 6번째

연극 '사신연의 꽃'

한일문화교류회의는 2012년부터 일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한교류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 제작하고, 일본과 한국의 배우가 공동 출연하는 연극 '사신연의 꽃(使臣宴の花)'을 개최한다. 일본과 한국의 우호 문화 교류 역사를 테마로 한 창작 연극으로 1부는 김정숙 사신이 신라에서 떠나 나니와에 도착하는 장면을 음악극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2부는 일본에서 사신을 맞이하고 환송하는 장면으로 일본 여배우 마쓰자카 게이코(松坂慶子) 씨의 낭독극으로 구성된다. 1부 시나리오는 구정호 교수(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2부 시나리오는 우에노 마코토 교수(上野誠, 나라대학)가 작성하여,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교류에 걸맞은 양상블을 만들어내고 있다. 입장무료.

일시 11월 12일(일) 17:00~19:00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주최 한일문화교류회의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울재팬클럽(SJC)

문의 한일문화교류회의 010-2686-8782



일본소녀만화의 세계 : 소녀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

오는 11월 15일부터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일본소녀만화 작가 12명의 57개 작품이 한국만화박물관(부천소재)에서 전시된다.

본 전시는 일본만화 특유의 장르인 소녀만화의 가치에 주목하는 유일무이한 국제순회전시로서 일본사회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며, 일본소녀만화 대표작가 12명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전시 작품은 고컬리티 복사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작가의 사인을 넣어 특별 제작했다. 작품 전시 이외에 원본 만화책, 번역 간행본, 관련 피규어 등도 함께 전시하여 대중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료 무료.

기간 11월 15일 ~ 2018년 2월 25일 10:00~18:00(매주 월요일, 1월 1일, 구정 전일·당일)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제2기획전시실

주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후원 ㈜시공사, 애니박스, 서울문화사

문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02-397-2820



요시다 아키미 「바나나 피쉬」 1985-1986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는 심부름 주유를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지난 여름, 공주시의 축제인 여름야행, 그 중에서도 백제 25대왕 무령왕 별과 공주 별을 만나기 위해 무령왕의 탄생지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加賀島)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가카라시마 가카라시마 초중학교 학생 백제방문
2017.8.26(토) 공주시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충남 공주시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이하 무령왕네트워크)'의 어르신들은 백제인의 모습으로 10명의 어린 손님들과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들을 기쁘게 맞이하였다.



환영의 노래는 가수 노사연의 '만남', 백제의 미소로 기쁨을 가득 담은 뜨거운 한대에 감동의 눈물을 보이는 학부형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가카라시마.



지난 여름 나는 무령왕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무령왕이 태어난 섬 가카라시마 무령왕 탄생제를 방문했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1500년전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백제가 멸망하기 전, 백제 개로왕은 아우 곤자를 일본에 보낼 때 자신의 임신한 부인을 함께 보냈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 各羅島(가카라시마)에서 무령왕을 출산했다. 이에 무령왕을 섬왕, 즉 사마왕이라 불렀다."



*나라무세마 - '임금의 섬'이라 불리는 무으로 백제 사람들이 가카라시마를 부른 이름

탄생제가 끝난 후 우리가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끝까지 배웅해 주었던 그 10명의 가카라시마 초. 중학교 학생들.

가카라시마는 초. 중학교가 함께 있다. 고등학교가 되면 섬 밖 가카라시마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10명이지만 안타깝게도 내년이면 3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여름 무령왕 탄생제가, 매년 가을 백제 문화제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가카라시마 아이들 초청은 한국관광공사와 대한항공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